

한국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공동체성*

Bipolar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and the Trinitarian Community

김성원 (Sungwon Kim)**

ABSTRACT

Today,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extreme bipolarization. Politically, public opinion is almost exactly divided in half along the structure of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and political antagonism among families, work, and friends is widely noticed. Along with this political conflicts, regional sentiments and opinions concerning women's rights are also worrisomely divided. Economically, neo-liberal capitalism divides society between the super-rich capitalists and the rest in a 1:99 ratio, which becomes a major factor in growing social unrest today. If we zoom out to see the mega-trends today, philosophies such as individualistic humanism and postmodernism are alienating many young people from meaningful social relationships. These unfortunate trends seem to only grow stronger by the technological revolu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In this quarantined, hyper-connected society we are driven into thorough isolation where there is no hope for communal life.

This article seeks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deepening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bipolarization problems of today's Korean societ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For that purpos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deal communality underlying the Christian faith. Specifical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rinitarian communality of God, which is the original

* 2023년 5월 15일 접수, 6월 11일 최종수정, 6월 14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3년도 서울신학대학교 연구비를 지원받아 집필되었다. 이 논문은 저자가 같은 제목으로 2022년 제39회 기독교학문 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주제강연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서울신학대학교(Seoul Theological University) 교수 (철학석사학, 조직신학 전공),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2(소사본동), sungwonkimis@gmail.com

source of Christian communality. By introducing and discussing Social Trinitarianism – a contemporary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Trinity – this article discovers essential principles from divine, social nature of the Trinity. This article further argues that the principles of divine communality shown by the Trinity can be applied to human society as viable principles of communality. The evidence for such a claim is the existence of family and the church. Christian theology recognizes the family and the church as two communities established by God, and that the trinitarian principles of communality operate within these human communiti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divine principles of communality found in the Trinity and operating in family and the church may become a solution for remedying the bipolarizing Korean society.

Key words: Korean society, bipolarization, Community, Social Trinity, Christianity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 정치적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 대립의 구도를 따라 시민들은 거의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져 있으며, 가정과 직장과 친구관계에서도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그 깊은 갈등의 골짜기에 이어서 지역감정과 젊은 남성과 여성들 간의 갈등의 골도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있다. 경제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 결과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1:99의 사회로 갈려 있으며 그 경제적 골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거기에 이 시대의 정신인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나 개인주의적 포스트모던주의,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든 공동체적 담론들을 거부하게 만들고 대면적 모임을 거부하게 하면서 그들을 고립된 개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좀 더 크게 보면 남-북한의 관계의 골은 무엇보다도 깊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는 이제 핵전쟁의 양상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다.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서도 깊은 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평양과 그 외 지방 사이의 깊은 정치적, 경제적 골짜기가 있으며,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에 모든 재정을 투입하는 가운데 경제는 파탄 날 지경이며 인민들은 굶주림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사회에 바람직한 공동체성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을까? 갈등을 줄이고 증오와 대립의 거대한 힘들을 순화시키며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논문은 기독교가 가진 고유한 공동체성을 한국사회 양극화의 한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기독교적 공동체성의 출발점인 삼위일체 교리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삼위일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양식이라는 것을 최근의 신학연구를 인용하여 주장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양식으로부터 두 가지 참된 공동체성의 원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양식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며 또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논의하면서 논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의 원리들이 함의하는 사회적 시사점들과 구체적 적용점들을 제안하고자 시도한다.

II. 기독교적 공동체성의 원형인 삼위일체 공동체성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기독교의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 교리는 언제나 지성인들에게 이해의 어려움을 주어 왔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이 교리는 기독교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져 왔으며,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교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여겨져 왔다.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신비라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 이해를 발전시켜 왔다.

먼저 삼위일체 교리의 형성사를 보면, 삼위일체 교리는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계승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형성되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들과 그의 행적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다.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유대인의 오순절 절기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또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삼위일체가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확정된 것은 서기 381년으로,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전체 교회의 공의회(church council)에서 성령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결의와 함께 이뤄졌다. 신학자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바질(Basil the Great),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와 같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함께 성령님의 신성을 옹호하고 변증했다. 그들이 정리한 삼위일체 교리의 정의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당시의 그리스어 용어로는 하나님은 하나의 본성(οὐσία, ousia)과 세 위격(ὑπόστασις, hypostasis)을 갖는다고 표현하며, 라틴어로는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substantia, substance)와 세 위격(persona, person)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참여한 전체 교회 대표들이 이를 공인했고, 그 이후로 오늘날 정통적인 모든 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며 공식적으로 고백한다.

기독교 교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살펴보면 비록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성경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학자 존 메츠거(John Metzger)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אלהים, elohim)이라는 복수형 명사를 포함하여 복수의 동사, 복수의 형용사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구약성경이 엘로힘과 야훼(יהוה, Yahweh)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삼위일

체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들 (שְׁכִינָה, shechinah)과 같은 복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나 구원자(מָשִׁיחַ, Messiah)를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Metzger, 2006).

신약성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표현들이 다수 존재한다. 신학자 아서 웨인라이트(Arthur Wainwright)는 신약성경의 본문 가운데서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첫째, 로마서 9:5, 히브리서 1:8을 비롯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7개의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도행전 2:36과 같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칭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다. 셋째, 베드로후서 3:18, 요한계시록 1:5b, 6에서처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표현들이 있다. 넷째, 마태복음 25:31-46, 마가복음 8:38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분으로 기록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 다섯째, 골로새서 1:16, 히브리서 1:2, 요한복음 1:3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로 기록하고 있다. 여섯째로 마가복음 12:6-7, 13:32, 14:61-62, 누가복음 10:22 등 여러 구절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Wainwright, 2001: Part II).

삼위일체의 교리가 강조하는 것은 삼위(三位)의 인격적 구별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 즉 일체(一體)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위성과 일체성에 대한 동시적 인정과, 삼위와 일체 간의 완벽한 균형이다. 이에 따라 삼위성과 일체성에 대한 동시적 인정과 균형을 거부하거나 깨뜨리는 입장들을 정통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예를 들면 4세기경 구레네 출신으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교부였던 장로였던 아리우스(Arius)는 하나님의 일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삼위성을 거부했다.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교회에 큰 논쟁을 일으켰으나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아리우스주의를 현대에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Jehovah's Witnesses)들이다. 이들 역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임을 주장하며, 성령의 인격성이나 신성을 부정하면서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여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다. 반면, 몰몬교 (Mormonism, 말일성도그리스도교회,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의 경우에는 아리우스주의나 여호와의 증인들과 반대로 하나님이 여럿이라고 하는 다신교를 주장하고 있다. 정통 교회에서는 그들을 또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신학계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 현대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단지 불가해한 신비로 생각하는데 머물지 않고, 성경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 교리를 새롭게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신학적 노력이 사회적 삼위일체론 (social trinitarianism)이다. 사회적 삼위일체론 신학자로는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 미로슬라브 볼프

(Miroslav Volf), 엘리자베스 존슨(Elizabeth Johnson), 존 지지올러스(John Zizioulas), 코르넬리우스 플랜팅가(Cornelius Plantinga) 등이 있다. 이들은 앞서도 언급한 바질, 닛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등 동방교회 교부신학자들의 신학적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사회적 삼위일체론 신학은 그동안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카톨릭교회에서 발전되어 온 삼위일체 신학이 하나님의 일체성에 집중한 나머지 세 위격을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한다. 그 대안으로 사회적 삼위일체론자들은 콘스탄티노플교회를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 신학의 전통이 강조해 온 것처럼 세 위격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일체성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 교리와 정의를 계승하면서도, 이 교리에 대한 신학적 설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체성을 공동체성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 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신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 위격은 각각 건강하고 구별되는 인격적 주체성을 가지고 계시며, 이 세 위격들이 하나의 나눌 수 없는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공동체적 삼위일체론(communal trinitarianism)이라고 불리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더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표현이 사회라는 표현보다 교제와 연합의 특성들을 더욱 명확히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기존 통용되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으로 표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 위격의 구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삼신론(tritheism)으로 넘어가거나 삼신론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다. 삼신론은 세 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신학자 월터 카스퍼(Walter Kasper),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 알랜 토랜스(Alan Torrance)와 같은 유럽의 신학자들은 몰트만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이 삼신론의 위험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의 일체성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웨슬리신학연구소, 2015: 245).

이러한 삼신론의 위험에 대해서 사회적 삼위일체론자들은 다양한 대답과 해명들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삼신론 혹은 다신론은 신들 간의 불화와 경쟁을 보여주고 있으나, 성경이 보여주는 세 위격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과 화합과 순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신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Plantinga, 1989: 37-53). 역사상 다양한 종교의 신과는 달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인격은 특별한 관계적 본성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통해서 서로는 인격적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인격적 상호관계성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은 다른 인격을 향하여 나의 인격을 개방하며 다른 인격을 섬기며, 두 인격이 내면적으로 결합하며, 이러한 본질적 관계성 속에서 각 인격은 참된 자신의 본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윤리의 핵심인 사랑을 묘사하는 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사랑이 인간이 가진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활동과도 다른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사랑은 인간이 자기중심의 판단이나 활동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과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사랑은 인간이 가진 본성과 지식들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맞닿아 있다는 인식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은 인간이 가진 본질이며, 그 내용은 타인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가 서로에 대해 바로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연합을 이루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명확하고 담대히 증거한다.

둘째로,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러한 사랑의 존재방식이 세속적인 존재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 방식임을 지적한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세 위격의 독립성과 상호성은 주체성과 관계성에 관한 과거와 현대의 개념들을 넘어서는 독특한 것이라는 것이다. 정교회 (orthodox church) 신학자 존 지지울러스 (John Zizioulas)는 이 점에 대해서 탁월한 신학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Zizioulas, 1997). 그는 최고의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substance)로 보았던 그리스철학과 달리 기독교는 최고의 존재를 인격(person)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체는 독립성을 그 본질로 하는 반면, 인격은 관계성을 그 본질로 한다. 그는 기독교가 인격을 궁극적인 존재의 개념으로 제시함으로써, 물질적이고 독립적인 형이상학에 빠져 있었던 그리스철학에 혁명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제시하는 삼위와 일체는 물질적이고 독립적인 일자들의 외연적 집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인격들의 본성적 연합이라는 것이다.

현대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도 근대철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지지울러스와 동일한 관계적 존재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실체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존재이해는 유럽의 근대과학과 근대철학에서 주류가 되었으며, 그 결과로 이원론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의 독립적 실체인 인간정신과 또 다른 독립적 실체인 물리적 세계를 인정함으로써, 이들 실체 간에 아무런 본질적 관계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인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인식의 주체인 정신과 인식의 대상인 세계와의 사이에서도 아무런 본질적 관계성을 제시할 수 없는 인식론적 회의론(懷疑論, skepticism)이나 유아론(唯我論, solipsism)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실체론적 사고는 형이상학적, 인식론

적 이원론(dualism)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근본적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일원론적이며 관계론적이고 유기체적 철학(organic philosophy)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화이트헤드는 관계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재인 현실재(現實在, actual entity)를 중심으로 하는 일원론적 우주론 모델을 제시한다(Whitehead, 1979). 이러한 관계적 사고와 관계론 우주론의 연장선에서 화이트헤드는 삼위일체를 언급한다. 그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존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복수성(multiplicity)을 주장함으로써 형이상학에서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인정한다.(Whitehead, 1967: 168).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기독교적 공동체성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지올러스와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주장들과 제안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양철학이 주장해 온 것처럼 최고의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substance)라는 세속적이고 독립적인 존재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나 기독교의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양철학에서의 실체적인 존재와는 달리 기독교의 존재 개념인 인격은 타자와의 관계성을 본질로 하는 존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삼위일체에서 인격으로서의 삼위는 서로 구별되고 독자적인 인격성을 가지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인격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인격은 다른 인격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처럼 다른 인격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되는 인격이다.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 방식을 일자(一者), 타자(他者), 다자(多者)와 같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인격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론적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새로운 존재론의 길을 제시한다는 지지올러스의 관찰은 타당하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세 인격의 본질적인 관계성과 세 인격 간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그리스어 페리코레스시스(περιχώρησις, perichoresis)라는 단어이다. “페리”는 주위에, 둘러, 에워싸다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며, “코레스시스”는 담다, 포용하다, 침투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페리코레스시스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상호내재(相互內在) 혹은 상호침투(相互浸透)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틴어로는 circum-incessio, 영어로는 co-inherence, mutual penetration 혹은 mutual indwelling으로 표현할 수 있다. 페리코레스시스의 삼위일체론적인 의미는 “세 위격들의 결합과 연합 혹은 내적으로 교통하는 상태 또는 행위”이다(김석환, 2007: 218). 다시 말하면 페리코레스시스는 인격적 존재자들이 내

1)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인격이라는 인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위격(位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나님의 위격은 인간이 가진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인격의 원형이 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인격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인격성과 신비를 포함하고 있다. 필자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격이 가진 인격적 본질을 드러내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면적으로 서로 결합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관계적 행위를 통해 본질적으로 서로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위격들의 사회성과 관계성을 페리코레시스로 이해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없이 결합되고 본질적으로 연결된 인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인가? 아니면 셋인가?” 하는 산술적인 물음이나, “주체인가? 혹은 타자인가?” 하는 실체론적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내면적 관계성을 통한 공동의 존재방식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속에서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협업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는 사역에서도 긴밀히 협업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순종으로 그 미션을 수행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청하였으며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III. 인간의 공동체성의 현실적 원리인 삼위일체 공동체성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가지신 사랑의 존재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부여주셨고, 또 물려주셨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삼위일체의 존재양식을 인간을 향해서 개방해 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과 자유로부터 피조물인 인간에게 개별성과 선택의 자유와 사랑의 능력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인격적 교제의 관계성으로 들어오셨다.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신학자 몰트만이 강조하듯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신 자유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움으로 피조물과의 관계성에 참여하신 것이다(Moltmann, 1993a).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인격적이고 페리코레시스적인 교제라는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개별성과 자유를 존중하심으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셨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공동체적 존재방식을 버리고 자신들의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 대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관계적 사랑을 실천하셨으며, 예수님은 동일하게 관계적 사랑 안에서 자신을 비워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스스로를 희생하셨다. 성령 하나님 역시도 인간에게 임재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도우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인간을 위해 중보기도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가진 페리코레시스적 본성을 인간에게 연장시켜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7-12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사랑이 인간에게 부여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인간에게 부어주셨다고 증거한다. 더 나아가 사랑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식의 방법임을 증거하고 있다. 인간은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적 교제를 열어서 인간들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그 아가페의 교제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학자 몰트만이 발견하는 삼위일체론적 교제의 구원이해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교제 안으로 초청받고 있으며 종말에 우리는 그것의 완전한 실현을 보게 될 것이다 (Moltmann, 1993b).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삼위일체 공동체적인 사랑이 인간이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윤리의 근간임을 또한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 마태복음 22:37-40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양식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율법과 윤리의 본질이자 최고의 목적임을 명확히 하셨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랑의 명령을 대명령 (The Great Commandments)으로 부르며 중시한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원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43-44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중보하라고까지 명령하신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수준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경험치와 가능치를 넘어서는 온전한 사랑임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이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적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가르친다. 한 편으로는 개개인의 인격적 주체성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존중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한 삶을 실천하되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수사랑의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기독교는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독교적 공동체는 각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또한 각 개인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주체적이며 관계적인 참된 본성을 발견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IV. 삼위일체 공동체성의 현실적 모델인 가정의 공동체성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인간 공동체가 있다. 그 하나가 가정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창세기 1장 22-25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브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페리코레스스의 관점에서 위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담은 동물이나 식물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맞는 인격적 교제의 대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부터 이브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브가 아담의 몸의 일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아담과 이브가 본질적으로 상호관계성을 타고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가 이성(異性)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 또한 아담과 이브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상호보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인격체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가족관계는 본질적으로 관계적 공동체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삼위일체와 인간가족의 연관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신학적으로 진술한다:

모든 인간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표면화될 수 있는 가족 안에서 태어난다. 하나님은 위격들의 연합이며 공동체이고, 가족은 사랑과 연합 위에 세워진 인간 공동체의 근원적 표현이다... 아이는 그 둘 사이에 태어나 남편과 아내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바뀌게 하고 그 둘을 연합시킨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 밖으로 나와 그들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것, 즉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의 열매인 자신들의 아이에 집중한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복된 삼위일체의 - 가장 풍부한 것 중의 하나인 - 형상을 가진다. 가정에는 사람들의 독특성이 - 남편은 아내가 아닌 것처럼 - 있다. 가정 내에서의 각자는 자율성과 적절한 역할을 가지면서도 사랑과 같은 필수적인 연대에 의하여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 속에는 생명에 있어서의 한 연합이 있다. 즉, 셋은 셋으로 남아있되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 가정의 통일성은 복된 삼위일체의 그것과 유사하다. 통일성은 각 사람이 타자를 향하여 나아감과 동시에 동일한 생명의 공유와 사랑의 표현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인식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인식과 같다.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되게 한다. 유비적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현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하나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위격들과 인간을 하나되게 하는 신적인 위격인 성령을 '연합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Boff, 김영선·김옥주 역, 2011: 72).

보프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 존재양식을 인간 가족에게 부여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삼위일체와 세 가족의 본질적 유사성을 설명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관계적 형상(relational image of God)을 인간의 가족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 교리의 정립에 크게 공헌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아담과 이브와 아들 셋(Seth)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Gregory of Nazianzus, 1999: 340). 해와 빛과 열의 비유, 혹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 인간의 정신과 기억과 의지 등 삼위일체를 비유하는 여러 비유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그레고리가 제안한 가족의 비유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상호관계적인 존재양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비유가 아닐 수 없다.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에서 참된 인격적 관계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족 경험 속에서 확인된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은 여전히 서로 헌신한다. 밖에서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조차도 자기들의 가족을 아끼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물론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기까지 하는 파괴적인 가족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은 이러한 예들을 가족 구성원들의 인격성의 결함으로 인한 예외적인 일탈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V. 삼위일체 공동체성의 현실적 모델인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사회적 모습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다. 초대교회(初代教會, the early church)는 각 구성원들이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교제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공동체에 들어오는 그런 공동체적 교제의 공동체였음을 성경본문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初代教會)의 이러한 교제의 삶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셨다는 것이다. 사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랍게 임하시는 체험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른 신자들과 더욱 깊은 사랑과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놀라운 교제공동체로 발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를 위한 사랑에서도 확인된다. 요한복음 17: 21-23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계신 높은 기대를 볼 수 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과 같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리를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특별한 공동체로 만드시려는 계획이다. 이것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님의 임재 체험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다.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2:13-22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적 관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세상의 적대적 관계성을 변화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 당시 로마의 가장 번성하는 교역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인간의 원수됨을 소멸하시고, 두 사람이 한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타인도 나그네도 아니며 오직 교회와 성도들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그는 담대히 증거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교제는 모든 인류를 향해 개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인간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회복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이 이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랑의 교제에 있다고 강조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에밀 브룬너(Emil Brunner)가 있다. 브룬너는 교회를 교제(koinonia, communion)를 위해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인 에클레시아(ekklesia)라고 정의한다 (Brunner, 박영범 역, 2013: 19, 29). 앞에서 소개한 신학자 보프 역시도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해한다: “교회는 본래 믿음과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시된 일치의 사상,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요 17:21)처럼 그 말씀대로 살기위해 노력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Boff, 김영선·김옥주 역, 2011: 77). 더 나아가 보프는 교회가 삼위일체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것을 권면하면서 삼위일체의 인격적 결합이 교회의 공동체성의 모델이 됨을 강조한다: “교회가 독특한 세 위격의 일치와 한 하나님이 됨으로 인한 삼위일체적 연합인 영원한 샘에서 마시면 마실수록, 교회는 교회의 내적인 분열을 보다 더 잘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권위적

구별이 없어지고, 삼위일체의 통치를 위해 사역하는 진정한 형제자매, 즉 하나님의 한 가족 안에서 의 평등한 관계의 공간이 될 것이다 (Boff, 김영선·김옥주 역, 2011:78).

VI. 삼위일체 공동체성이 사회양극화에 제시하는 함의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기독교에게 있어서 인격의 본질적인 주체성과 관계성에 기반한 사랑의 교제와 공동체성이 인간성과 사회성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격적 교제는 삼위일체의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인간의 가족과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다. 주체와 타자성, 사회성은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성에 비추어 보면 실체론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의미를 벗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존재론적 의미를 갖게 된다. 각 개인은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고유한 주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주체성은 타자성을 인정하고 섬길 때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게 된다. 사회성은 더 이상 계약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의 존재양식으로써 근본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이러한 공동체성이 오늘날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와 인류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적용점을 가질 수 있을까?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과 적용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인격적 주체성과 자발적 공동체성의 동시적 조화

기독교의 삼위일체교리와 가정과 교회가 시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회적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의 동시적 조화의 원리일 것이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교리는 특정한 공동체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의 개별성과 일체의 연합성의 균형과 조화이다. 삼위일체는 주체성과 공동체성 모두를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희생하지도 않으며, 공동체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주체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17-18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희생

은 아버지의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 기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39).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자신이 체포되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선택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있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이러한 균형은 이것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공동체성이 어떠한가 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첫째로, 바람직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주체성과 자발성이 공동체성과 함께 강조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고유성과 주체성을 무시하게 되면 개인은 소외되고 인격적 관계성은 파괴된다. 예를 들어서 사회나 집단적 가치나 통일성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totalitarianism)는 각 개인의 자유와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말살하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체제이며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개인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의미있는 통일성과 공통성을 추구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에도 참된 공동체성은 파괴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경우에 파괴되는 것은 비단 공동체성만이 아니다. 개개인 역시도 과도한 개인의 주체성의 강조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적 본성의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개인을 온전한 인간이 되게 만드는 인격적 속성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본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격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자신을 다른 인격체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행위이다. 다른 인격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고유성과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개별성이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인간소외를 낳으며 참된 공동체성을 파괴하며, 개개인을 비인간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인격적 공동체 원리는 역사상의 다양한 사회구성의 이데올로기들과 체제가 인간의 요구에 얼마만큼 맞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시사점을 우리는 얻게 된다. 형평성이나 효율성이나 합리성 등 사회를 운영하는 이데올로기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많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가 제시하는 인격성과 공동체성의 균형이라고 하는 요청은 하나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들어보자. 사회주의는 자본가들의 경제적 독식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면서 사회 전체의 평등성, 즉 경제적 공동체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공동체 원리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인간을 이익계급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집단 간의 투쟁을 본질적인 인간의 속성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기독교의 공동체 원리를 벗어난다. 노동자 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자본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말살하고 구속하며, 노동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개인적 자유나 의사를 무시하고 집단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강요하는 면에서도 기독교의 공동체 원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기독교의 공동체 원리에 비추어 보면 자본주의도 일부만이 긍정적이다. 개인의 경제적 욕구와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강조하는 인격적 주체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타인의 욕구에 대한 존중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회전체의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의 안정을 도외시하는 면에 있어서 자본주의 역시도 기독교 공동체성의 원리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2. 인간의 본성적 결함에 대한 각성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양극화된 우리 사회에 가정과 교회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의 겸손과 회개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온전한 상호존중과 함께 온전한 상호복종과 섬김으로서 작동하는 공동체를 제시하며, 또 그것을 인간에게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공동체적 원리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사회모델이나 사회적 이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그것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 삼위일체의 원리는 인간 공동체에 겸손을 요청하며, 그 한계를 발견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으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나머지 참된 공동체성을 상실했으며,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한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기독교는 선언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죄성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가정 공동체들은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가정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상호 간에 고통을 주고받고 있으며, 모범적인 사랑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종종 가족 이기주의를 통해서 성경이 명령하는 보편적 사랑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있다. 교회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교회 안에서 이뤄지고, 계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며 박해자들을 용서하는 섬김과 나눔과 포용의 역사가 교회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도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계약적 원리 위에서 작동되는 일반적인 사회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기심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삼위일체 공동체성의 원리들은 모든 인간 공동체에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적 결함에 대한 기독교의 해법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해법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화(聖化)의 과정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죄성을 극복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본성적인 결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지적한다.

모든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죄성을 갖게 되고 본성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모든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성의 추구에 있어서 인간의 이러한 반공동체적인 본성적 결함을 고려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놀랍게도 많은 사회적 운동에 이러한 상식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들의 본성적 결함과 죄성을 도외시하는 가운데서 사회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문제가 제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혹은 경쟁하는 집단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도나 체제를 바꾸면 사회문제는 해결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집단이 제거되면 살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보자.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그들의 소유를 박탈하여 분배하면 세상이 더 평등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경제적 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며, 이 공동체는 인간의 근원적 소외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반대의 결과였다.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지도자들은 새로운 특권 기득층 계급을 만들어 냈으며, 평등과는 거리가 한참 먼 독재사회를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여전히 대다수 노동자들은 빈곤과 인권유린의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그 한 원인은 사회주의자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이기심과 권력욕을 간과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고전적 자본주의자들이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자들은 정부가 시장을 내버려두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

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시장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이기심은 상호 간 조절되고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대 자본가들이 출현하고, 그들이 가진 자본의 힘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다른 영역들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더욱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제는 자본가들의 힘이 정치와 국가와 국제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금권정치(金權政治, plutocracy)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계 지도자들은 오늘날 수많은 경제적 위기의 바탕에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자들도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욕이 통제 불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보편적 본성적 결함에 대한 기독교의 인식은 양극화된 사회의 문제에 어떤 실용적 시사점을 주는가? 그것은 첫째로, 어떤 지도자나 제도도 모두 문제점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지도자도 이기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공정할 수 없으며,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라도 구성원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의해서 왜곡되고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나 국제관계를 들여다보면 극단적인 갈등과 양극화의 주범은 자신만이 정당하다는 근거없는 도덕적 오만임을 볼 수 있다. 한 정당이 자신의 정당을 선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당을 악으로 규정할 때,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악으로 규정할 때, 그것은 근거 없는 오만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러한 겸손한, 상대주의적인 자기인식은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타인의 잘못을 관용하게 하며, 타인의 입장을 반영하게 한다.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기심과 결함을 인정하는 정치집단이 상대방을 파괴하고 제거하려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을 정당화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자신의 동기나 계획이 지닌 상대성과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방성은 상생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고용주와 고용인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한계를 깨달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충돌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도 양측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자기 정당화와 오만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의 판단에 오류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형식적인 평화협상은 진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인간의 이기심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들을 절대화하여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견제하고 권력의 집중을 막을 균형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이러한 생각을 일생동안 발전시켰다. 그의 입장을 흔히 기독교적 현실주의 (Christian Realism)이라고 부르거나 그리스도교 실용주의(Christian Pragmatism)이라고 부른다. 기독교적 현실주의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 간의 냉엄한 경쟁과 대결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행동하자는 현실주의 관점과는 다르다. 니버가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죄성과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면서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Harris, 안태진 역, 2016: 83-84)²

니버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의 예를 들면, 니버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로 정의의 실현을 제시했다(Niebuhr, 이한우 역, 2004).³ 그리고 니버는 인간의 집단적 이기심을 제어할 가장 현실적인 정치체제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한다(Niebuhr, 이한우 역, 1995)⁴ 니버가 제시하는 방향은 기독교가 가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 편으로 인간의 사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공동체성을 부여받았으며, 그것을 추구하고 또 향유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인간의 사회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공동체성이 깨어짐을 경험하였으며 그것을 회복해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이-존재인 인간은 그 깨어진 사이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기독교 현실주의는 이 회복과정에 있는 존재인 인간사회가 취할 태도와 방향을 잘 보여준다.

3. 원형적인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할과 희망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이 제시하는 또 한 가지 사회적 함의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왜곡되고 파괴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깨어지고 양극화되고 대립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서 참된 공동체성의 보존과 회복과 확산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17b)”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안식일

2) 니버의 입장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한 편으로 니버는 낙관주의나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 이상을 포기하는 비관주의나 냉소주의를 거부했다고 할 수 있다.

3) 이 책에서 니버는 개인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는 이기심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덕의 사회적인 목표를 아가페 사랑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실천에 두었으며, 사회적 함의에 따라서 강제력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니버는 처음에 자유주의적 기독교인으로서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했으나, 곧 인간의 보편적이고 본성적 결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니버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기심을 견제하는 정치적 시스템으로써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체제를 통해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민주주의를 옹호했으나 민주적 과정이나 타협의 정치에 대한 낙관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욕을 견제하는 권력분립의 안전장치로써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병든 인간과 관계성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당신의 참된 공동체성을 부여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깨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해 오셨다.

이것은 삼위일체가 제시하는 원형적인 인격적 공동체성이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현실적 가능성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동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참된 인격적 공동체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인간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해 가신다. 이렇게 보면 니버는 이뤄질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윤리를 종말에 가서야 이뤄질 불가능의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으로 보았으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공동체성의 회복에 대한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 속에서 이러한 실현을 꿈꾸게 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참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힘과 희망이 된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에 대한 소명을 주셨고 그를 움직이셔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은 고백도 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28-29). 바울은 자신의 노력 이전에 자신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사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소망이 될 수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기심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며,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사회의 미래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인류의 1/3에 해당하는 24억의 인류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사랑하시며, 인간사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이며,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악을 심판하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지구촌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또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안심과 위로가 될 수 있으며, 현실적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VII. 구체적 실천을 위한 제안들

위에서 제시한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의 원리들과 함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시도할 수 있을까? 이 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 제안들을 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경향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권위주의란 나이, 지위의 차이들을 계급적으로 인식하고 리더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이 가르쳐주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파괴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는 우리 한국사회와 세계 여러 사회와 종교 시스템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권위주의적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남편 혹은 아내가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부모는 자녀에 대해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권위주의적 교회에서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면서 성도들의 주체성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권위주의적 경제인들이나 기업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은 협력자들과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이 요청하는 것은,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리더들이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와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의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구의 자유 인본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인해 오늘날 한국과 서구화되는 많은 나라들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개인주의자들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기를 거부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사정에 무관심하다. 그 결과 이들이 속한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부모와 자녀 간 교제가 단절되고, 직장에서도 단체활동이나 교제는 사라지고 오로지 일을 중심으로만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경제적 양극화를 악화시켜 큰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들은 사회적 담론을 어렵게 만들어 정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적 담론들이 부재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이나 독재자들의 지배를 받게 하고 있다.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은 이러한 개인주의를 거부하도록 요구한다. 개인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개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발현하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속한 모든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를 극복하도록 노력하면서 관계적 삶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셋째로, 우리는 절대화된 모든 사회적 이데올로기들을 거부해야 한다. 서양의 근대주의는 주체적 이성의 힘을 신뢰하면서 사회계약론, 제국주의, 자본주의, 인종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여

러 가지의 사회적 이데올로기들을 생산해 왔다. 각각의 이데올로기들은 군주와 귀족들이 지배하던 전통사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정한 공헌을 하기도 했으나,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이데올로기들이 절대적인 선으로 주장되었으며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자신의 논리로 다른 세계를 식민지화하였으며 식민지의 주민들은 노예화되어 강제노동과 착취에 시달려야 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주체적 자유와 경제적 이기심을 절대화하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생산력의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가 있었으며,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희생이 따랐으며, 경제적인 양극화가 따랐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노동자의 해방을 주장하였으나, 자본주의의 필연적 멸망과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의 절대적 법칙성과 폭력적 혁명과 사회주의 엘리트들의 독재의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공산당의 독재만 계속되는 실정이다.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은 이 모든 이데올로기들의 실패의 원인으로 인간의 본성적인 결함, 이기심과 죄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 주장하고 주도하는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모든 절대화된 이데올로기적 주장들을 추방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절대적인 선으로 규정하고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주장들은 그것이 진보주의든 보수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의심하고 비판해야 하겠다. 가정에서도 자신을 절대적인 선으로 정당화하는 주장들은 극복되어야 하겠다.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은 유한하고 또 실수할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이 요구된다.

VIII. 요약과 결론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양식인 삼위일체는 특별한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각 위격이 지닌 인격적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가운데 참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적 사랑을 통한 연합의 존재양식을 잘 설명하고 있는 현대신학의 관점으로 우리는 사회적 삼위일체론 신학을 꿈꿀 수 있다.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동방교회의 삼위일체 신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각 위격이 가진 인격적 주체성의 구별됨과 동시에 주체적 자유로부터 자발적인 섬김과 복종을 통한 사랑의

일체적 연합을 발견한다.

기독교는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러한 삼위일체적 사랑의 존재방식이 인간에게 부여되었으며, 인간은 이와 같은 인격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회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증거한다. 인간의 사랑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두 가지 대명령이다. 이 사랑의 명령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로 가르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인간 공동체로써, 남성과 여성의 상호보완적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를 온전케 하며, 자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양식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하나의 모형이 된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양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형제와 자매로서 진정한 사랑과 나눔과 예배의 공동체 양식을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적대적으로 갈라진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들 안에서 사회적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축매제로 사용하신다.

기독교가 증언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인격적 사랑의 공동체성은 오늘날 인류와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극심한 양극화와 대립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로, 삼위일체 공동체성이 제시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의 동시적 조화의 원리는 모든 사회적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공동체성의 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이 원리는 모든 사회적 관계와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금석이 된다.

둘째로, 삼위일체 공동체성이 제시하는 공동체 원리는 기존의 모든 공동체 이론과 체제의 한계를 지적한다. 기독교는 인간 전체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인간성이 훼손되고 근본적 결함을 가지게 되었음을 예언자적으로 증거한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기독교의 분명한 증거는 인간의 사회성 역시도 이러한 타락과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사회나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모든 낙관적인 견해들을 정당하게 거부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회 지도자들과 제도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겸손과 관용을 요청하며, 대화적이고 상생적인 자세를 요청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권력을 나누고 상호견제하는 민주적 권력분립의 제도를 통해 결합 있는 인간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적 대안을 요청한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의 사회가 인간의 죄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겸손과 상호견제를 통한 온전한 인격적 사랑의 공동체성을 지향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들이 그 길에서 참된 모범이 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셋째로,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성 삼위 하나님이 사회 속에서 주도하고 계신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원형적인 인격적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창조원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일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방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사회를 삼위일체적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회적 노력이 무너진 곳에서 있는 인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석환 (2007). **삼위일체론과 성령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 [Kim, S. H. (2007). *Trinity and Pneumatology*. Seoul: Korea Scholarly Information.]
- 김영선·김옥주 역 (2011). **성삼위일체 공동체**. Boff, L. (2000). *Trinity and Society*. 서울: 크리스찬 헤럴드.
- [Kim, Y. S. & Kim, O. J. (2011). *Trinity and Society*. Seoul: Christian Herald. Trans. Boff, L. (2000). *Holy Trinity, Perfect Community*. New York: Orbis Books, 2000.]
- 박영범 역 (2013).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가?**. Brunner, E. (1951).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서울: 대서출판사.
- [Park, Y. B. (2013).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Seoul: Dae Seo Publishing Company. Trans. Brunner, E. (1951). *Das Missverstaendnis der Kirche*. Seoul: Deaseo Publisher.]
- 안태진 역 (2016). **라인홀드 니버**. Harris, R. (2011). *Reinhold Niebuhr: Reconsidered*. 서울: 비아출판사.
- [Ahn, T. J. (2016). *Reinhold Niebuhr*. Seoul: Via Publishing Company. Trans. Harris, R. (2011). *Reinhold Niebuhr*. Cambridge: Grove books Ltd.]
- 웨슬리신학연구소 편 (2015).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서울: 아바서원.
- [Methodist Renewal (2015). *Triune God in Relation*. Seoul: Abba Books.]
- 이한우 역 (1995). **빛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Niebuhr, R. (2011).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서울: 문예출판사.
- [Lee, H. W.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Seoul: Moon Ye Publishing Company. Trans. Niebuhr, R. (2011).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이한우 역 (2004).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Niebuhr, R. (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서울: 문예출판사.
- [Lee, H. W. (2004).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Seoul: Moon Ye Publishing Company. Trans. Niebuhr, R. (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 Gregory of Nazianzus. (1999). Fifth Theological Oration. in Schaff, P. (Ed.) (1999).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cond Series*, Vol 7.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 Metzger, J. B. (2003). *The Tri-unity of God is Jewish*. Angier: Jewish Awareness Ministries.

- Moltmann, J. (1993a). *God in Creation: A New Theology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God*. trans.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Moltmann, J. (1993b). *Trinity and the Kingdom*. trans.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 Plantinga, C. (1989). Social Trinity and Tritheism. in Ronald, J. (Ed.) (1989). *Trinity, Incarnation and Atonement: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Essays*. Feenstra and Cornelius Plantinga.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Wainwright, A. W. (2001). *The Trinity in the New Testament*.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 Whitehead, A. N. (1979). *Process and Reality* - corrected edition. New York: Free Press, 1979.
- Whitehead, A. N. (1967).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Free Press.
- Zizioulas, J. (1997). *Being as Communion*.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한국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공동체성*

Bipolar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and the Trinitarian Community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국문초록

오늘날 한국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 대립의 구도를 따라 국민들의 여론도 거의 정확하게 양분되어 가족과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반목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적 구도와 함께 지역감정과 남녀간의 갈등과 대립도 우려스러운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사회를 거대자본가들과 나머지 경제주체들을 1대 99로 계급화하고 있어 큰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개인주의적 인본주의나, 포스트모던주의,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는 사람들을 사회생활로부터 소외시키고 있으며, 공동체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철저히 고립된 개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논문은 오늘날 이처럼 심화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모색한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양극화에 대한 기독교의 대안은 기독교 신앙의 저변에 있는 본질적 공동체성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공동체성에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을 제시한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전적 교리에 기초하여 현대신학자들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소개하면서 이 논문은 그 속에서 사회적 공동체성의 본질적인 원리들을 발견한다. 이 논문은 더 나아가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이러한 완전한 공동체성의 원리들이 인간 사회에서도 적용되고 공동체성의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이 논문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제시한다. 기독교 신학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로 인식하며, 이 공동체들에서는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의 원리들이 작동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가정과 교회에서 작동하는 공동체성의 원리들이 한국사회의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며 구체적인 시사점과 적용점들을 예시한다.

주제어: 한국사회, 양극화, 공동체, 사회적 삼위일체론, 기독교